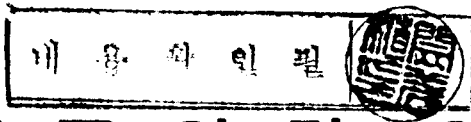


도농복합시 설치에 대한 의회의견서

양 주 군 의 회



양주군의회의견서

□ 안건 : “ 도농복합시 ” 설치에 대한 의견

□ 필요성

- 양주군은 행정구역이 3읍 4면 171개리 1,080개반이며 2002년 6월말 현재 인구는 141,337명으로 도시적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89.9%로써 택지개발사업과 공동주택등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등 급속한 도시화로 산업중심의 변화와 도시·교통·환경·문화등 도시적인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행정에 맞는 행정체계의 조정이 요구되며
- 경원선전철 복선화등의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있어 주거지역및 기업 활동의 적지로 부상됨에 따라 2005년도에는 20만명이상의 자족도시 성장을 목표로 한수이북 지역의 개발수요를 체계적으로 흡수하면서 도농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 조정의견

- 군청 소재지인 양주읍을 동으로 설치하며, 도시화율이 높고 인구 5만 이상의 회천읍은 시 출장소를 설치하고 분동하는 것이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임.

□ 종합의견

- 양주군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간의 경쟁력 강화와 21세기 통일시대의 대비는 물론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도농지역간의 균형발전으로 주민 편익을 증대시키는 반면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통일시대의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양주의 역사성과 주민의 정서에 맞는 도농복합 형태의 양주시 설치가 필요함.

2002. 8. 16

양 주 군 의 회 의 장